

신선담과 신이 서사의 향방

김수연*

|| 차례 ||

1. 들어가는 말
2. 신선 세계에 대한 인식
3. 장생불사와 신이한 힘
4. 신선담의 탈유가적 성격
5. 나오는 말

[국문초록]

조선 시대 신이 담론에 대한 논의는 여러 차례 이루어졌지만, 대체로 귀신 담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런데 조선 시대에 나온 신이담 가운데는 신선과 관련된 것들이 이야기 역시 많이 나타났다. 이 시기에 나온 신선담 가운데 문제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유가의 선비가 신선의 세계에 흘러 이 세계를 떠나버리는 이야기의 유형이다. 본 논문에서는 「취유부벽정기」, 「최생우진기」, 「가평유생」 등을 대상으로 유가적 주체 구성이라는 관점에서 이 작품들을 분석하였다. 「취유부벽정기」에서는 주인공 홍생은 천녀 때문에 이 세상을 벗어나 신선이 되면서 유가적 주체에서 이탈해버렸다. 그러나 16세기 이후에 나온 「최생우진기」와 「가평유생」 역시 신선의 세계에 매혹된 주인공들이 등장하지만 유가적 질서에서 이탈하지는 않는다. 이 이야기들은 모두 신선담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유가적 질서를 반복하고 재생산한다. 이러한 과정은 16세기 이후 유가 사회가 더욱 공고히 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취유부벽정기」에서 홍생은 신이한 세계로 나아갈 수 있었다. 유가적 합리주의에 의해 신이한 세계는 조선 초기부터 배척되었지만, 『금오신화』가 나왔던 15세기 말에는 유가의 선비들의 의식 속에는 합리와 신이의 세계가 위계화적으로 구조화되지 않았다. 이들은 여전히 신이의 세계 속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6세기 이후에는 유생들은 신이의 세계로 나아가긴 하지만 그

* 중국 華中師範大, hyup77@daum.net

세계는 유가적인 방식으로 조직되었고, 이후 유가적 질서는 남성적 가족질서로 이어지게 되었다.

주제어 : 취유부벽정기, 최생우진기, 가평유생, 신선담, 탈유가적, 신이서사, 유가적 주체

1. 들어가는 말

귀신과 신선은 인간 세계 저편에 사는 신이한 존재들이다. 귀신은 저승이나 죽음과 같은 것과 연결되어 불안과 공포, 두려움과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키지만 신선이나 선계는 인간의 영원한 삶과 연관되어 줄곧 동경의 대상이 되었다. 귀신과 신선이 상기하는 것은 다르지만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든, 죽음 이후 신선이 되든 이 존재들은 모두 죽음과 관계가 있다.¹⁾ 이들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존재들이고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기에 그 실체를 알 수 없지만, 이들은 인간의 상상력을 끊임없이 자극해왔다. 그동안 조선 시대 신이 담론에 대한 논의는 여러 차례 이루어졌지만, 대체로 귀신 담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²⁾ 초기 소설사에 있어서 귀신과 관련된 작품들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해명이 필요했다. 『금오신화』 속의 「만복사저포기」, 「이생규장전」 등은 귀신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취유부벽정기」의 주인공은 신선이 되었고, 『기재기이』 속의 「최생우진기」 역시 신선담이며, 이후 신선과 관련된 서사들을 적지 않게

1) 인간이 신선이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예컨대 우화등선(羽化登仙)과 같이 직접적으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도 신선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죽음을 초월하여 영원한 삶을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 역시 인간의 죽음과 관계는 있다고 본다.

2) 조현설, 「조선 전기 귀신이야기에서 나타난 신이 인식의 의미」, 『고전문학연구』23권, 한국고전문학회, 2003. 147-178면. 윤주필, 「귀신론과 귀신이야기의 관계 고찰을 위한 시론」, 153-200면; 강상순, 「조선시대 필기·야담류에 나타난 귀신의 세 유형과 그 역사적 변모」, 118-150면. (신이와 이단의 문화사 탐 저, 『귀신 요괴 이물의 비교문화론』, 소명출판, 2014.)

나타났다.

조선 전기 신선의 이야기는 허탄하다는 점에서 귀신의 이야기와 함께 비판 받았다. 그러므로 신선의 이야기를 논할 때 귀신담은 중요한 참조점이 될 수 있다. 조선 전기에 나왔던 귀신담을 퇴치담(退治談)과 혹귀담(惑鬼談)으로 나누다면 그 가운데 퇴치담은 다수를 차지한다. 유가의 선비들은 귀신 퇴치 서사를 반복함으로써 유가적 세계에서 신이한 것을 쫓아냈다. 이에 비해 귀신에게 홀리는 혹귀담은 유가의 선비들이 귀신에 홀려 그 세계로 견인되는 내용으로 유가적 주체의 균열과 관계된 서사³⁾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선이나 선계를 다룬 이야기 역시 귀신담처럼 유가적 주체 구성과 균열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해볼 수 있다. 신선이나 선계의 존재는 온갖 즐거움을 누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끄는 매혹적인 힘이 있다. 신선담에는 신선의 세계를 경험하고 나서 현실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그 세계에 빠져 버리는 이야기도 있다. 유가의 세계에 살았던 선비들은 그들이 부정했던 신선 세계에 빠져 신선이 되고 현실 세계로 돌아오지 못했다. 귀신에 홀린 선비들은 이 세상에서 자취를 감춰버렸지만 신선의 세계에 빠진 이들은 신선이 되었고, 이로 인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신이한 세계에 빠지는 귀신담과 신선담이 유가적 주체에 균열을 일으키는 서사라면 새로운 존재가 되는 신선담은 균열되었던 주체가 통합되는, 즉 자기 정체성을 구축하는 서사가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선계에 빠지는 신선담을 통해 주체의 균열과 구축의 과정을 연구하게 될 것이다.

2. 신선 세계에 대한 인식

주지하다시피 조선 초기부터 신이한 것은 배척되었다. 부처나 신선설은 황당무계한 요설일 뿐이니 유가 세계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다.

3) 조현설, 위의 논문

세상을 혹(惑)하게 하고 백성을 속이는 것은 신선과 부처와 같은 것이 없다. 내가 일찍이 이계조(李軌祖)의 전(傳)을 보고 신선과 부처의 심히 허황하고 망령됨을 알았다.⁴⁾

위의 인용문 외에도 왕조실록에는 진시황과 한무제가 신선을 찾아나선 것에 대해 황탄함을 논의하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조선 초기부터 신선이나 도술은 요망한 것으로 비판받았고, 진인의 출현이 나라의 망조를 예견하기도 했다.⁵⁾ 종종 때에는 과거 시험 문제로 장생불사(長生不死)하는 것과 또 시체는 남고 혼은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방술이 참으로 있는지, 사람이 배워서 가능한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다. 이 질문에 정응(鄭膺)이란 사람은 장생구시한 자가 있다는 말은 듣지 못하고 이로 인해 요절하고 패란한 자가 많다는 모범답안 대책문(對策文)을 제출해 과거에 급제하였다.⁶⁾ 종종 때에는 유교적 정치 이념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도교의 제사를 주관하던 관청인 소격서에 대한 폐지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 모든 논의와 논란은 신이한 것을 몰아내고 유가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었다. 그런데 조선 시대 유자들은 신이한 존재에 대해 비판적이었지만 신선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일관한 것은 아니었다.

예전에 소경 대왕이 경연을 열었을 때의 일이다. 신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 이준경이 말했다. “지금 세상에도 신선이 있으니, 소신이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임금이 놀라서 묻자, 그가 대답하였다. “지금 재상 원혼은 먹는 것을 절제하고 여색을 멀리하며, 스스로 천금 같이 몸을 보전하여 나이가 90세에 이르도록 아무런 병이 없으니, 진정 신선입니다.”⁷⁾

4) 『세종실록』 4년(1422년) 5월10일 “惑世誣民, 莫如仙佛. 吾嘗觀李軌祖傳而知仙道誕妄之尤也.”

5) 김정숙, 「17, 18세기 한중(韓中) 귀신·요괴담의 일탈과 욕망」, 『귀신 요괴 이물의 비교문화론』, 소명출판, 2014. 296-327면.

6) 이정섭 옮김, 『국역 동책정수』, 국립중앙도서관, 2006, 113-116면.

7) 昔者, 昭敬大王筵, 語及神仙事, 李浚慶曰: “今世有仙小臣目睹之.” 上驚問之 對曰: “今者, 宰相元混, 節食遠色, 自保千金, 壽至九十, 尚無恙, 眞神仙也” 『어우야담』에 이를 언급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사람의 수명은 하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인

위의 인용문은 『어우야담』 중 일부인데, 이준경은 신선을 절제하고 섭생에 힘쓰며 장수하는 존재로 인식하였다. 신선이 되려면 여색을 멀리하고 절제를 해야 하는데 이는 유가 선비들의 수양법과 거의 비슷한 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신선술이라는 것이 황당무계한 도술이 아니라 몸을 양생하고 오래 사는 방법이 된다면 이를 받아들인데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다.⁸⁾ 또 도가의 양생법을 정리한 『준생팔전(遵生八牋)』이라는 책은 조선 시대 선비들 사이에서 읽히기도 했다.⁹⁾ 이 정황들을 살펴보면 신선의 존재 자체에 대해 의구심을 보이거나 신이한 도술에 대해 비판적이긴 했지만 한편 신선과 이들이 사는 세계를 동경하기도 했다.

이 세상에서 이른바 신선이라고 하는 자를 본 사람이 누가 있기가 하겠는가. 그러나 신선이 사는 곳이야말로 그지없이 즐거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곳의 정경을 극구 묘사하곤 하는데, 가령 안개와 노을에 잠겨 아스라이 떠 있는 바다

데 이를 연장할 수 있다는 신선설을 비판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글을 인용한 이유는 이준경 같은 세상 사람들은 신선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인용했다.

8) 주희의 『근사록』을 통해서 조선 시대 유자들이 신선이란 존재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오래 살기 위해 수양하거나 절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신이한 도술을 부리는 일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근사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선의 이야기에 이치가 있습니까?” 정호가 말했다. 밝은 낮에 하늘로 날아 올라가는 것과 같은 것은 없다. 산에 살며 육체를 소중히 하고 기운을 단련하여 나이를 연장하고 수명을 더한다고 말하는 것은 있다. 비유컨대 하나의 화롯불을 바람 앞에 놓으면 쉽게 다 타버리고 밀실에 놓으면 타버리기가 어려운 것과 같으니 이러한 이치는 있다. 또 물었다. 양자가 ‘성인이 신선을 스승으로 삼지 않는 것은 그의 방술이 괴이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성인도 신선이 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대답하였다. “신선은 천지 사이의 도둑이다. 조화의 기틀을 흠치지 않으면 어찌 수명을 연장할 수 있겠는가? 성인이 즐겨하셨다면 주공이나 공자가 그것을 했을 것이다.(問: 神僊之說有諸? 曰: 若說白日飛昇之類, 則無若言居山林間葆形煉氣以延年益壽, 則有之. 譬如一爐火, 置之風中則易過, 置之密室則難過. 有此理也. 又問: “揚子言聖人不師仙, 厥術異也. 聖人能爲此等事否?” 曰: 此是天地間一賊. 若非竊造化之機, 安能延年? 使聖人肯爲, 周孔爲之矣. 주희, 여조겸 편저, 엽채 집해, 이광호 역주, 『근사록집해』, 아카넷, 2004.)

9) 안대회 지음, 『선비답게 산다는 것은』, 푸른역사, 2007, 50면

속의 삼신산이라든가 궁실이 영롱하게 솟아 있는 땅 위의 각종 동천에 대한 기록을 접하노라면, 자신도 모르게 탄식하면서 부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세계를 추구한다는 것이 황당무계한 일일 수도 있으나, 가령 신선이 없다고 한다면 몰라도 만약 있다고 한다면 이런 즐거움을 누리고 있을 것이 또한 분명하다고 하겠다.¹⁰⁾

위의 인용문을 살펴보면 글쓴이는 신선의 존재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거나 선계를 좇는 일이 황당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신선이 누리는 즐거움에 대해서는 동경하는 태도를 보였다. 유자들은 신선과 같은 신이한 존재를 부정하면서도 그 세계를 동경하는 모순된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유자들이 묘사한 신선 세계는 온갖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곳이다. 이들이 동경했던 신선의 세계는 유자들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기도 하다.

3. 장생불사와 신이한 힘

선 혹은 그들이 사는 곳은 인간에게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다. 선계에서는 신선과 같이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살고 있다. 혹은 인간이 선계에 들어가면 영원히 살 수 있다. 죽음은 인간의 유한성을 확인하는 사건이지만, 영원한 삶을 통해 유한한 인간의 생명은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다. 또한 선선의 힘을 체험한 존재들은 인간이 가질 수 없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신선을 이해하는데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관건이 되는 것은 장생불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이다. 인간은 태어난 이상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영원히 죽지 않는 신선은 인간에게는 이해의 범위를 벗어난 존재이다. 그런데 신선을 인간의 시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시간을 따르는 존재라고 이해한다면 꼭 불가해한 대상만은 아니다.¹¹⁾ 사람은 탄생과 죽음으로 일생이 끝나지만, 자연의 세계

10) 世豈有觀所謂神仙者? 而意其居之可樂, 極言以狀之, 則洲島煙霞之縹緲, 洞天宮室之玲瓏, 蓋令人嗟羨. 其究夸誕爾, 然使無仙則已, 有則必樂此也.(崔崑, 「澄映堂十詠序」, 『簡易集』)

에서 죽음은 의미가 없는 사건이다. 자연 세계는 탄생과 죽음, 재생이 반복될 뿐이다. 인간이 신선이 되면 인간적인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고, 변신을 거듭하면서, 인간의 몸에서는 나올 수 없는 에너지를 분출한다. 이들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자연의 힘을 체현한 존재들이다. 인간이 장생불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인간이 자연의 시간을 따른다면 장생불사 역시 불가능한 상상만은 아닐 것이다. 인간이 자연의 변화무쌍한 힘을 체현한다면 영원한 삶을 살거나 노인이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서 어린아이가 되거나 변신의 도술을 부리는 것은 기이한 일이 아니다.¹²⁾ 이제까지 언급한 것을 죽음-생명, 유한-무한, 인간-자연으로 계열화한다면, 인간이 신선이 된다는 것은 생명-무한-자연의 세계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남을 의미한다.

인간에게 죽음은 삶을 파괴하고, 해체하는 공포스러운 사건이다. 인간은 죽음에 임박했을 때 삶의 욕망을 강렬하게 느낀다. 신체적인 죽음의 공포를 느낄 때도 그렇고, 죽음과 같은 삶에 갇히게 되었을 때도 삶의 욕망을 느낀다. 사람이 병에 걸리면 조화와 균형에 맞게 삶의 리듬을 조정하면 회복할 수 있다. 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신체의 조화와 균형을 회복하는 과정이고, 회복 능력이 떨어지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인간 사회 역시 조화와 균형에서 어긋나면 병에 걸리는 것처럼 문제가 생긴다. 인간 사회 내부의 문제가 심각해 회복 능력이 떨어지면, 그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 인간 질서의 외부로 나아가 희생의 동력을 찾아야 한다. 인간 질서에 자연의 역동적인 힘을 끌어들이

11) 신선서사가 다른 서사와 변별되는 것은 시간의 문제인데, 시간의 소멸성보다는 재생성이, 비반복성보다는 순환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선경, 「중한 신선고사의 시간성 비교고찰-『태평광기』와 『해동이적』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제23호, 중국어문학연구회, 2003. 363-388면)

12) 인간이 신선이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를 갖게 된다. 갈홍이 편찬한 『신선전』에는 악자장(樂子長)이라는 인물이 소개가 되어 있다. 이 인물은 선인으로부터 신비스러운 약을 받아 먹었다. 이 약은 뱀이 용이 되고, 노인이 아이가 되는 변신을 거듭하게 해주는 엄청난 에너지를 지니고 있었다. 약을 먹은 악자장은 180살이 넘도록 늙지 않았다고 한다. 이 외에도 신선은 아니지만 잠시 그 세계를 경험한 것뿐인 인간도 자연의 힘을 체현하기도 했다. 조선 시대에 나왔던 「장도령이야기」에서 신선이 된 장도령을 만난 벼슬아치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젊어지고, 머리털도 희어지지 않았고, 90세를 넘기도록 병을 앓지 않았다.

다면 다시 인간 사회는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자연의 힘을 인간 질서에 다시 불어넣는다면 기존의 것은 해체되지만, 새로운 것이 생성될 수 있다.¹³⁾ 인간 세계 역시 고정되고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탄생-죽음-재생의 과정을 거쳐야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인간이 장생불사를 꿈꾸거나 신이한 에너지가 넘치는 선계를 찾아나서는 일은 수명 연장이라는 꿈과도 연관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간 사회 내부에서 삶의 동력이 생성되지 못할 때 자연으로 돌아가서 그 힘을 인간 사회 내부로 끌어들이 생동감 넘치는 삶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상징적 행위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4. 신선담의 탈유가적 성격

신선담에는 인간이 신선이 되는 신선전과 선계를 경험한 이야기 등이 포함된다. 전통적으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신선전은 『포박자』, 『열선전』, 『태평광기』 등에서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최치원이 『선사(仙史)]를 지은 이래 오랫동안 단절되었고, 17세기 초에 이르러야 다시 이어지게 되었다.¹⁴⁾ 신선전 외에 선계를 경험하는 선계담으로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으로 도연명의 「도화원기(桃花源記)」를 들 수 있다. 도연명이 무릉도원의 세계를 찾아나선 것은 당대 정치 현실에 환멸 때문이었고, 자연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만이 스스로를 구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¹⁵⁾ 그런데 「도화원기」의 어부가 발견한 세계는 인간이 살고 있는 작고 평화로운 마을이었지 신선이 노니는 곳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후 시나 소설 등에 변주되어 나타날 때에는 도화원을 선경으

13) 기존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생성해낸다는 면에서 신선담에는 질서와 규범에 대한 전복의 욕망이 숨어 있다. 김정숙, 앞의 논문

14) 박희병, 「이인설화와 신선전」, 『한국고전인물전연구』, 한길사, 1992, 187-275면. 도교설화에 대한 연구는 박기용, 「한국도교설화의 현세성과 초월성」, 『국제언어문학』 29호, 국제언어문학회, 2014, 51-80면 참조

15) 김효민, 「생명의 심상공간-무릉도원과 그 변주」, 『중국어문학논집』 제34집, 중국어문학회, 2005, 329-345면.

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신선으로 그렸고 심지어 도연명을 신선처럼 묘사하는 경우도 있었다.¹⁶⁾ 무릉도원은 신선 사상과 결부되면서 무릉도원은 선계의 대명사처럼 쓰였고, 이상향을 나타내는 심상 공간이 되었다. 한국에서 이상향을 찾는 무릉도원 서사는 고려 시대 중기부터 나타났다. 고려 시대 이인로가 쓴 『파한집』에서 청학동 설화를 볼 수 있는데, 청학동은 인간의 낙토였지 천상의 공간은 아니었다. 그런데 고려 시대 진화(陳澣)가 쓴 「도원가(桃源歌)」에서는 도원을 신선이 사는 곳으로 일컬으며 이상향으로 묘사하기도 했다. 무릉도원은 평화로운 농촌의 모습으로도, 혹은 신선이 사는 천상적인 공간으로도 묘사되기도 했다. 또한 조선 중기에는 『어우야담』 속의 이원익, 윤걸, 이지번, 이산해, 묘향산 별천지, 해변 어부 등에도¹⁷⁾, 『청구야담』 속의 권진사 이야기에 나타나기도 했다.

선계를 경험한 서사들을 일별해 보면 대체로 인간이 선계를 경험하고 인간 세계로 되돌아오지만 그곳을 다시는 찾을 수 없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어우야담』 속 이원익의 이야기에서 이원익이 젊은 시절 선계에 들어갔다가 기이한 경험을 하고 돌아온 후 시간이 흘러 다시 그곳을 가보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인간들은 선계를 접촉했지만 신이한 경험으로 그칠 뿐이었다. 결국 이 경험을 통해 이들은 인간 세계와 선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그런데 이외에 선계를 경험하고 접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계에 빠져 세상에서 자취를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 유형이 있다. 이 유형은 위에서 언급한 선계체험 이야기 유형보다 문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사라짐이 문제적인 것은 이들이 유가의 가르침을 따르며 신이의 세계를 부정하는 유생들이라는 점이다. 유생들은 알 수 없는 이끌림에 의해 선계로 들어갔고 신선이 되었다. 일반적인 신선담에서는 인간이 신선이 되려고 할 때는 어떤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신신이 되거나, 이와 같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인간적 한계 때문에 좌절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런데, 선계에 매혹되는 선비들은 이전에 신선이 되려고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들은

16) 김효민, 앞의 논문

17) 정선경, 「韓國神仙說話의 기원 및 전개—於于野譚을 기점으로」, 『중국어문학논집』 제32집, 중국어문학회, 2005. 221-242면.

신이한 도술을 부릴 능력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다. 유생이 귀신에 홀린 매혹담을 탈유가적이라고 한다면 선계에 홀린 이야기 역시 탈유가적 요소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선비가 선계나 신선에 매혹된 이야기로는 『금오신화』 속의 「취유부벽정기」와 『기재기이』 속의 「최생우진기」, 『천예록』 속의 「가평유생」 등이 있다.¹⁸⁾ 남성 주인공들은 어느 순간 선계에 매혹당해 그곳으로 들어갔고 다시 돌아오는 것은 하지만 이후에 이 세계에서 종적을 감추었다. 『금오신화』 가운데 「취유부벽정기」의 홍생은 신선이 된 천녀를 만나고, 천상으로 가 신선이 되었다. 「취유부벽정기」의 주인공 남성이 간 곳은 옛 조선의 서울 평양이었다. 소설의 첫머리를 보면 홍생이 있는 평양은 술과 기생 등 흥취가 넘치고 있다. 홍생은 술에 취해 몽롱한 상태에서 배를 타고 강을 거슬러 가서 부벽정에 이르고 시를 읊었다. 그러다 천녀와 조우하게 되는데 그녀는 기자의 딸로 위만 조선의 찬탈 때문에 깊은 상심에 빠졌다. 이후 신인을 만나 영원한 삶을 사는 존재가 되었고, 상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천녀는 선계에 사는 존재이지만 귀신과 비슷한 점이 많다. 한을 품고 있고 죽으려고 했다는 점, 또 인간인 홍생을 죽음으로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원귀(冤鬼)와 비슷해 보인다. 천녀는 홍생을 만나기 전 선계의 존재가 되었고, 그곳에서 온갖 즐거움을 누렸다. 천녀는 선계에서 구해와 육합을 배회하면서 온갖 선경을 두루 유람했다. 천녀는 신인에 의해 신선이 되었고, 향아의 시녀이기도 하고, 선계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선계의 지배자인 옥황상제의 명을 받기도 했다.¹⁹⁾ 그럼에도 천녀는 신인이든

18) 본 논문에서 세 작품을 거론한 것은 주인공들이 선계에 빠져 홀리는 이야기의 유형이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귀신담 가운데 흑귀담보다 퇴치담이 많은 것처럼 신선담 가운데는 신선 세계를 경험하고 돌아온 이야기 유형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선계를 갔다온 이들은 기이한 경험을 했을 뿐이지 이것으로 인해 이들의 인생 행로가 바뀌지는 않았다. 그런데 본문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세 작품은 신선 세계에 빠지면서 변화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9) 천녀는 선계의 존재가 되어 선계를 유람하다 중국에는 향아의 시녀가 되었다. 향아는 남편인 예를 따돌리고 혼자 장생불사의 약을 먹고 하늘로 올라가 달의 신이 되었다. 향아의 행동을 보면 금지나 제약에 얽매이지 않은 매우 자유로운 존재였다. 향아는 하늘에서 온갖 즐거움을 향유했다. 향아와 천녀를 연관한 것은 천녀 역시 금지나 제약을 넘어서 있는 존재라는 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다.

항아든 옥황상제든 이러한 존재들에 얽매이지 않고, 매우 능동적으로 움직이며 온갖 즐거움을 향유하는 존재가 되었다. 천녀는 홍생을 죽음에 이르게도 했지만 반대로 그를 선계로 인도하고 신선이 되게 했다는 점에서 구원자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²⁰⁾ 천녀는 홍생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으며 홍생은 천녀와 헤어진 후 그녀를 연모하다 병이 들었다.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듯 「취유부벽정기」에서 중요하게 지적되어야 할 점은 위만의 찬탈 사건이다.²¹⁾ 위만의 찬탈은 세조의 찬탈과 겹치면서 비극성이 더해진다. 인간의 역사는 권력의 찬탈로 얼룩져 있다. 위만의 찬탈 이래 세조의 찬탈이 역사에서 또 일어났다. 인간의 권력이 지속되는 한 비극적 역사의 반복에서 벗어날 수 없다. 천녀는 선계에서 온갖 즐거움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감회에 젖어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 소설의 문면에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홍생이 도성의 흥겨운 분위기에서도 비감한 심정을 느끼는 이유 역시 이와 관련이 있다. 인간 세상의 질서는 불완전하고, 이로 인해 인간의 비극은 반복되어 나타날 것이다. 홍생이 인간 질서의 외부로 나아간 것은 인간 질서 자체가 자기 갱신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그로 인해 홍생은 우울함과 비감함이 증폭되었다. 홍생은 천녀의 인도로 인간 세계의 외부로 나아갔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존재가 됨으로써 에너지와 역동성을 지니게 되었다.²²⁾

20) 홍생은 천녀를 연모하게 되지만, 천녀와 홍생의 관계는 여타의 이야기에서 보이는 사랑하는 남녀와는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천녀가 홍생을 구원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21) 박일용, 「취유부벽정기의 형상화 방식과 그 의미—등목취유취경원기, 감호야범기와의 대비를 중심으로」, 『고소설연구』14, 2002, 5-30면, 김수연, 「〈취유부벽정기〉의 ‘경계성’에 대하여」, 『한국고전연구』19권, 한국고전연구학회, 2009, 217-250면. 정환국, 「『금오신화』와 『전등신화』의 지향과 구현화 원리」, 『고전문학연구』22권, 한국고전연구학회, 2002, 307-334면.

22) 홍생은 합리적 유가의 세계에 완전히 포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합리와 신이의 세계 경계에 있는 존재였다. 유가적 주체가 신이한 것을 배척하면서 합리적인 주체를 만들었다면, 홍생은 이와 반대로 신이한 세계에 빠짐으로써 새로운 존재인 신선이 되었다. 이 새로운 존재는 죽음과 재생의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존재로 (자연의) 생명력을 인간 세상으로 불어넣을 수 있다. 이 소설에서 홍생은 자연의

「최생우진기」도 인간이 선계에 들어가 신선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생은 유학을 공부했던 선비였다. 그는 용추동이라는 신비한 공간을 동경해오다 그곳으로 이끌려 들어갔다. 이 공간은 최생에게 매혹적이었으나 최생의 지기(知己)인 증공 스님에게는 두려운 곳이었다. 증공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최생은 몸을 던져 매력적인 공간으로 들어간다.

최생은 이 굴을 따라서 혹시 통하는 길이 있을 수도 있겠거니 여기고는, 어차피 죽을 운명이라면 죽더라도 굴 속에서 죽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드디어 굴속으로 길을 찾아 들어갔다. …(중략)… 길을 못 찾아 헤매며 갔다가 다시 돌아오곤 하면서 다시 수십 리쯤 가니, 점점 앞이 환해졌다. 굴도 그곳에서 끝났다. 문득 보니, 푸른 시내가 한 줄기 펼쳐져 있는데, 깊지도 알지도 아니하여 아주 좋았다.²³⁾

위의 인용문은 최생이 선계에 이르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데 「도화원기」의 그것과 비슷해 보인다. 이 공간에서 최생은 신선들과 만나고 잔치에 참여했다. 최생은 선계를 다녀온 후 이 세상에서 그 자취를 감추었다. 최생은 선계를 떠나오기 전 신선으로부터 약을 받아 먹었고, 10년 뒤에 봉래섬에서 만날 것을 약속한 것으로 보아 세상에서 자취를 감춘 후 신선이 되었을 것이다. 선계에서 만난 세 명의 신선들은 인간과 세상은 타락했고, 이로 인해 비감함을 감추지 못한다. 그런데 이 모임에는 음계와 양계, 유불선이 모였는데 이곳에 모여 잔치를 즐기는 모습이나 그들의 토론의 내용도 지극히 유가적인 세계를 지향하고 있었다. 이들은 신이한 공간 안에서 유가적 사유를 펼치고 있다. 또 이들은 진시황이나 한무제와 같은 이들이 신선이 되고자 천하를 혼란시켜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신선을 좇은 진시황과 한무제를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대목은 유자들의 시각과 동일하다. 세상은

생명력을 인간 세상으로 불어넣지는 않지만 본래의 존재가 해체(죽음)됨으로서 천상(자연세계)로 돌아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다.

23) 生以爲由此竇，或可通，等死，雖死竇中可也。遂尋竇而入，…(中略)…如往而復，約行數十里，漸覺開朗，竇且盡。忽有清溪一派，淺深可愛。(번역은 신광한 지음, 박헌순 옮김, 『기재기이』, 범우사, 2002를 참조하였다.)

도덕이 희미해지고 있고 세속에는 유자들은 있지만, 진정한 선비는 찾을 수가 없다.

최생은 이치에 통달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략)… 그러므로, 정치 교화가 아름답고 밝을 때에 양기가 드러나고 음기가 숨은 것은 요 임금과 탕 임금의 훌륭한 정치를 면려한 것이고, 하는 것이 어둡고 어리석을 때에 물이 마르고 산이 무너졌던 것은 유왕과 여왕의 잘못된 정치를 경계시킨 것이었으니, 모두가 천제의 인애하신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서 제가 공경히 받들어 행한 것입니다. 당시의 임금들이 이런 뜻을 살피지 아니하고 하늘의 뜻을 끊어버렸으니, 참으로 세상 교화가 쇠퇴하고 도덕이 희미해지고부터 하도와 낙서가 깊이 숨어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음양 오행의 감응함이 어찌 순조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백성들의 삶이 가련합니다.²⁴⁾

세상 사람들은 그를 우월하다고 비웃었지만, 선계의 존재들은 그를 세속의 유자들과는 다른 진정한 선비로 인정했다. 최생 역시 유가들이 부정했던 신이한 세계에 매혹당하고 신선이 되었다는 점에서 유가의 세계를 이탈했다. 그럼에도 선선의 세계에서 최생이 확인하게 되는 것은 유가의 이상 세계였다. 탈유가적인 공간의 신이한 힘은 유가적 주체를 재생산하는 동력으로 전환된다. 최생의 지기인 증공 스님이 신이한 공간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표면적으로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했지만 불가의 스님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 선계는 진정한 유자(혹은 진정한 유자가 되기 위한 선비)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다. 최생은 유학을 공부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선비였다. 공부를 포기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증공 스님과 만나 지기가 되었다. 최생은 유학에서 뜻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의 스님과 만났고, 함께 선(仙) 공부까지 하게 되었다. 즉 유가적 질서에서 이탈하자 새로운 세계와 접촉하게 된 것이다. 그가 용추동에 매력을 느끼는 것 역시 새로

24) 崔生可謂達理者非耶…(중략)…故治教休明而元陽愆陰者，是以堯湯勉之，作為暗昧而水滌山崩者，是以幽厲戒之，皆出於帝心之仁愛，而寡德之所寅亮也。時君不察，內絕于天，可不謂大哀歟。自世教衰道德微，圖書之祕久矣。二五之應，惡得若乎，則民之生憫矣。

운 세계와의 접촉을 원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최생은 유가 질서의 외부로 나가려 했지만 결국 유가적 질서 속으로 돌아오고 말았다.²⁵⁾ 즉, 이 소설을 통해 신이한 공간-탈유가적인 공간이 유가적 질서로 포섭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선계에 빠지는 매혹담은 17세기에 편찬된 『천예록』에 실린 「가평 유생」에서도 볼 수 있다.²⁶⁾ 가평유생은 선계로 들어가서 선계의 존재를 만나고, 다시 선계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점에서 위에서 거론한 두 소설들과 비슷한 부분이 많다. 이 유생은 문장과 식견이 높았지만 보잘 것 없는 선비였다. 그는 신이한 경험을 했지만 돌아와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데, 그가 이 일을 실체 겪었지만 선계에서의 일이 황탄한 것이라는 생각은 있었다. 그는 유학을 공부했던 선비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가평 유생은 선계로 들어가려고도 그 세

25) 「최생우진기」는 도선 세계의 비실체성과 도불의 이교가 성행하는 현실에서 유자로서의 도덕적 태도를 실천하기를 권계하는 내용은 담았다고 볼 수 있다.(전성운, 「〈최생우진기(崔生遇眞記)〉의 서사 기법과 의미」, 『어문논집』71, 민족어문학회, 2014, 125-151면.)

26) 「가평유생」의 말미에는 다음과 같은 평이 붙어 있다. “가평의 유생이 부인을 얻고 신선이 된 경우는 진실로 세상에 다시 없는 기우(奇遇)가 아닐 수 없다. 어찌 적강한 자가 아니겠는가? 기이하다. 참으로 기이하다.”(若加平校生之取婦登仙, 眞曠世奇遇, 豈非謫降者歟? 異哉異哉) 이와 같은 이야기는 『동야회집(東野彙輯)』 「예장옹인인성친(曳杖翁引人成親)」에서도 볼 수 있다. 이 이야기에는 구체적으로 유생 이름이 함영귀(咸英龜)라고 소개되어 있고, 이야기 말미에 일어나는 전쟁도 병자호란이 아니라 임진왜란이다. 부분적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동일하다. 『동야회집』의 말미에 붙은 외사씨의 평은 다음과 같다. 이 평은 『근사록』을 근거로 쓰여졌다. 기본적으로 신선술의 허탄함을 말하고 있으나 이 이야기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장석이 두항란을 만나고 배항이 운영을 만났으니 옛날에도 많이 이와 같으니 기이한 만남이 책에 나타난 것이다. 신선의 술은 세상 사람들이 허탄하여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정이천이 이르기를, 수련의 도는 천지의 조화의 기를 얻어서 수명을 연장한 것이다. 주자양이 참동계에 이르기를 단을 먹으면 장생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다. 과연(올바른) 도가 없었으니 선유들이 이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 이야기는 다만 이치가 현묘하고 측량할 수 없어서 역시 가볍게 의논할 수가 없다.(張頤之逢杜蘭香, 襄航之見雲英, 古亦多如此, 奇遇著於書者. 而神仙之術 世以爲誕妄不足信, 然程伊川稱修鍊之道, 竊造化之機, 延年益壽. 朱紫陽註參同契曰: 服丹可至長生. 果無是道則先儒必不爲此等. 說話第其理玄妙難測, 亦未可輕議也.)

계를 동경하지도 않았지만, 어느 순간 선계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곳엔 굽직한 소나무와 쪽 뺨은 대나무가 안팎으로 뻗뻗하게 둘러싸여 숲을 이루었고, 그 너머로 과연 큰 시내가 흐르고 있었다. 시냇물 바닥엔 하얀 돌이 편편하게 깔려 있었다. 자세히 보니 바로 앞에서 저 멀리까지 모두 하나의 바위였다. 물빛은 마치 옥과 같아 마치 흰비단을 펼쳐놓은 것 같았다. 마침내 바지를 걷고 물을 거슬러 올라갔다 물은 깊고 얇은 구분이 거의 없이 겨우 발을 적실 정도였다. 1리 정도를 더 올라가자 화려한 누각 세 칸이 눈에 들어왔다.²⁷⁾

위의 인용문은 혼자 남아 두려움에 빠져있던 유생이 노인의 가르침에 따라 길을 찾아가는 과정을 묘사한 부분이다. 시내를 따라 선계로 들어가는 모습이 도화원을 찾아가는 것과 비슷하다. 그는 선계에서 이전에 해보지 못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 세계는 인간 세계와 다른 듯하지만, 현실 세계와 많이 닮아 있다. 그는 이곳에서 선옹의 딸과 결혼을 했다. 결혼하고 아이가 안 생기자 환골탈태하는 약을 복용하는데, 이후 바로 정신이 맑아지고, 몸이 좋아져 자식을 생산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신선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약은 속세의 태를 벗고 신선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자식을 낳는데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²⁸⁾ 유생은 약을 먹고 자식을 낳았는데, 결국 약을 먹음으로써 더욱 인간답게 되었다. 유생은 선계에서 결혼을 하고 자식도 낳았고, 가정을 이루었다. 이 생은 이 세상에서는 보잘 것 없는 인간이지만, 자연스럽게 선옹의 딸과 결혼해서 선선의 세계의 일원이 되었다. 인간인 유생의 입장에서 보자면 선계는

27) 長松萬株，脩竹千竿，表裏成林，其外果有大溪，流下水底，白石平鋪，自近及遠，摠是一石，水色如玉，若布白練，遂揭水而上，無少淺深，僅躡足焉。行一里許，見有彩閣三間，巋然臨溪，丹雘照映，欄檻縹緲。生曳濕衣，挾荊杖，少憩於閣下。見閣內，以數尺白石，安於其中，清滑似玉，其平如砥。(번역은 임방 저, 정환국 역, 『천예록』, 성균관대학 출판부, 2005을 따랐다.)

28) 신선 세계에서 신선의 약을 먹는다는 것은 거듭남을 의미하는데 정신이 도달한 다른 세계의 상징 속에서 새로운 존재 의의를 부여받기 위한 문학적 장치이다. 즉, 복약 모티브에 의한 존재 차원의 변신은 ‘죽음과 재생’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정민, 『유선시의 서사들과 낭만적 상상력』, 『초월의 상상』, 휴머니스트, 2002, 202-208면)

모든 것이 완벽한 공간이었다. 유생은 이곳에서 심지어 임금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는 선계 생활에 적응이 되고, 그의 선계의 아내에 인도되어 선옹의 위엄을 확인한다.

금빛 궁궐은 은빛 누대가 하늘 가운데 아스라하고, 상서로운 구름과 안개는 하늘 밖에서 따스하게 피어올랐다. 그 사이 사이에는 봉황을 탄 자, 난새를 탄 자, 학을 붙잡고 탄 자, 용을 탄 자, 기린을 모는 자들, 구름에 앉아서 뛰어오르는 자, 용을 탄 자, 기린을 모는 자들, 구름에 앉아서 뛰어오르는 자, 바람을 몰아 나는 자, 허공을 걷는 자, 파도 위를 걷는 자들이 위로 올랐다가 내려가기도 하고 혹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기도 하며, 동쪽에서 서쪽으로 또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삼삼오오 짝을 지어 왕래하였다.²⁹⁾

위의 인용문은 유생이 선계에 들어오고 난 후 선옹의 위엄을 한눈에 조망하는 장면이다. 그의 눈 앞에 펼쳐진 광경은 매우 웅장해서 이루 다 말할 수 없었다. 이곳은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인간 세계와는 멀리 떨어진 별천지의 땅이었다. 그럼에도 선계에서 유생은 남성으로서의 욕망을 실현했다. 이 세계는 남성이라면 모두 꿈꾸는 곳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다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었다. 유생이 이 선계의 언저리에 들어갔을 때 그를 따르던 어린 종은 이유 없이 죽었고, 이후에 유생이 선계에서 돌아오자 그 입구에서 죽었던 종을 다시 만난다. 종은 누군가에 의해 그 공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일부러 제지를 받은 것이었다. 결국 이 공간은 오직 유생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그럼에도 이 모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공간에서 유생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유생은 선계를 떠나 그가 본래 살고 있는 세계로 돌아갔지만, 인간 생활에 만족할 수가 없었고, 제대로 적응을 할 수가 없었다. 원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고, 같

29) 金闕銀臺，縹緲於天津，祥雲瑞靄，暖暉於空外。跨鳳者 騎鸞者 控鶴者 乘龍者，駕獐者，坐雲而騰者，御風而飛者，步虛者，凌波者，或從下而上 或自東而西，或自南而北，三三五五，飛翔往來，笙簫仙樂之音，隱隱到耳

은 유생이라고 짐작되는 죽마고우를 제외하고 어느 누구와도 선계의 경험을 공유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선계에서는 갑자기 전쟁이 일어난다는 고지를 보냈다. 그 고지를 받고 선계로 돌아가 유생은 생명을 보존하고, 집안 역시 선계에서 유지될 수 있었다. 선계로 들어간 후의 그의 자취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현실 세계에서 보잘 것 없는 유생에 불과했지만, 선계에 들어가서 온갖 즐거움을 누리면서 신선이 되었을 것이다.

이 모든 일은 선옹에 의해 준비되고 계획되었다. 선계의 입구에서 처음 만난 노인은 이 유생을 오랫동안 그곳에서 기다렸다. 그가 들어오자 “그대가 찾아올 줄 이미 알고 있었기에 환영한다(已知爾來, 故迎之耳)”라고 말을 한다. 노인은 그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를 이 세계로 다시 부를 것이라고 예고까지 한다. 선옹은 선계를 지배하는 최고의 자리에 있는 존재이면서 마치 유생의 삶을 조정하고 준비하는 것 같다. 유생이 선계를 떠나게 되었을 때 신비로운 옷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 그는 더 좋은 선물을 생각했지만, 그의 기대와는 달리 초라한 옷 몇 벌뿐이었다. 그런데 알고보니 신비한 옷감으로 만들어진 것이었고, 사시사철 그의 몸을 감싸주었다. 인간은 옷을 입음으로써 외부 세계의 충격과 자극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즉 신선 세계에서 그에게 옷을 준 것은 그 세계가 마치 옷과 같이 그를 보호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든 위협에 처하게 되었을 때 유생은 이 옷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유생은 시골에 사는 보잘 것 없는 선비라는 것 외에 그와 관련된 정보를 찾아볼 수 없다. 몇 가지 더 살펴보자면, 그는 평소 성격이 유약했고, 어머니는 매우 엄한 사람이었다. 어머니가 엄해서 집으로 돌아와서 선계에서의 경험조차 말할 수 없었다. 그는 돌아온 후 어머니의 뜻에 따라 원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 인간 세계에서는 어머니가 유생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그는 선계에 들어가서 유약한 유생에서 자식과 가정이 있는 아버지가 되었다. 그리고 선계에서는 전쟁을 고지하기 위해 편지를 보냈을 때도 편지 외에 선계에서 낳은 두 아들까지 보낸다. 즉, 아버지로서의 유생을 일깨우고 그를 선계의 세계로 불러들인다. 그리고 이 공간에는 선옹처럼 지엄한 존재가 그의 인생을 조종한다. 즉, 선계는 그를 비호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선용같은 지배자가 있다면 전쟁도, 죽음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조선 중기에 나온 신선담에는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전쟁이 가로 놓여 있다. 「가평유생」의 마지막 부분에는 전쟁이 발발하기 전 이를 선계의 존재가 와서 알려준다. 이 시기에 나온 이야기 가운데 신이한 힘을 체현한 사람이 나타나 전쟁이 발발할 것을 고지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³⁰⁾ 혹은 선계의 존재들은 때로는 전쟁의 피해를 막거나 인재 등용에 실패한 권력자들을 비판하기도 한다. 인간 세상에 큰 사건이 일어날 때 자연의 세계, 예컨대 동물들의 움직임이 달라지는 것처럼 선계에서는 인간에게 어떤 전조를 보낸다. 즉, 인간 세계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자연은 이를 감지하고 인간에게 경고를 보낸다. 가평 유생 이야기도 표면적으로는 전쟁과 관련이 있는 다른 선계담과 비슷하게 보인다. 가평 유생은 전쟁을 피해 들어가기 위해 마을을 떠나는데 친척과 이웃 사람과 성대한 잔치를 벌인다. 이야기 말미에서 자기 가족들은 전쟁을 피해 선계로 들어갔고, 그가 살던 마을은 전쟁으로 쑥대밭이 되었고, 사람들은 죽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의 생사여부가 아니라 가족과 집안이 보존되고, 유생이 어머니를 모시게 됨으로써 효를 다할 수 있었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이야기 역시 유생이 신이한 세계에 끌려 들어간다는 점에서 탈유가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탈유가적인 공간에서 나오는 신이한 힘은 남성 주체를 구축하는 것으로 작동한다. 인간 세계의 남성 욕망이 선계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실현되고 있다.³¹⁾ 유가 사회에서 유가적 주체는 신이한 것

30) 『청구야담』에는 ‘天星深峽逢異人’이 실려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의 한 선비가 북관 지방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산중에서 우연히 냇물을 따라 가다 어떤 마을에 도착한다. 그곳에서 만난 노인은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삼척강릉지역으로 피하라고 일러준다. 또 별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박진현이라는 인물이 죽을 것이라고 예고한다. 선비는 이곳을 나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진짜 박진현이라는 인물이 노인의 말대로 죽었다. 선비는 노인의 말에 따라 가족을 거느리고 삼척으로 이사가 전쟁에서 무사할 수 있었다.’

31) 「가평유생」에서 선계는 남성들이 주조해낸 환상의 공간이다. 비슷한 시기에 이덕수(李德壽, 1673-1744)가 쓴 「홍환전」 역시 남성이 선계를 경험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다른 선계의 모습이 나온다. 「홍환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환은 백묘의 묘를 이장하는 제사를 가다가 선계에 들어가게 되었다. 말을 타고 가다가 그 말이 하늘을 날아가 속리산 운장대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곳에는 아름다운 누각이 있고,

을 배척하면서도 구축되었다면, 가평 유생에서는 신이한 세계를 통해서 선웅과 같은 존재의 비호 아래 이루어진다.

5. 나오는 말

신선이 되거나 선계에 들어가는 이야기는 인간의 수명 연장의 꿈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나타났다. 신선담이 자연의 힘을 인간이 체현하게 되는 이야기라면, 신선이 되거나 선계에 들어가는 일은 인간 사회 내부에서 삶의 동력을 찾지 못할 때 자연으로 돌아가서 그 힘을 인간 사회 내부로 끌어들이는 상징적 행위라고 볼 수도 있다.

신선담에서는 문장과 학식이 있는 유생들이 선계에 빠져 세상을 등지고 신선이 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부정했던 신이한 세계에 들어갔고, 허탄한 존재라고 여겼던 신선이 되었다는 점에서 탈유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알 수 없는 힘에 끌려 선계로 들어간다. 이들에게는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선계로 향하게 되고, 신선을 만날 수 있었다. 「취유부벽정기」, 「최생우진기」, 「가평유생」의 유생들은 어떤 힘에 이끌려 선계로 향했고, 선계의 존재를 만났다. 「취유부벽정기」에서는 왕조찬탈의 반복이라는 인간 역사의 비극이 있고, 「최생우진기」에서 인간 세상은 도덕이 희미해졌고, 「가평유생」에서는 전쟁이라는 큰 사건이 놓여 있다. 이들을 선계로 이끄는 알 수 없는 힘은 이야기 밖에 놓여 있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와 연관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 이들이 살고 있는 세계에 문제가 없었다면 이들은 다른 세계로 나아가지 않았을 것이다. 「취유부벽정기」,

홍환은 신비한 여성을 만나고 그 여성과 밤을 보냈다. 그렇게 3일을 보내고 나서 여인은 홍환에게 칠성제를 지내라고 하고 떠나버렸다. 그런데 홍환은 칠성제를 지내지 않아서 결국 죽게 되었다. 「홍환전」의 환상적인 선계는 인간 질서 외부의 세계로 어떤 금지와 제약이 없는 공간이다. 환상적인 공간과 그곳의 존재들은 매혹적이지만,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 「홍환전」은 전반적으로 잘 구성된 이야기라할 수 없지만, 환상적인 공간이 본래 지니고 있는 매혹성과 위험성을 보여준다.

「최생우진기」, 「가평유생」에서 유가들이 부정했던 신이한 세계로 들어갔다는 점에서 탈유가적인 신선담이라고 할 수 있다. 「취유부벽정기」에서는 홍생은 천녀에 의해 신선이 되었다. 그는 선계로 들어가 신선이 되었고, 인간 질서의 외부로 나아갔다. 「최생우진기」에서 최생 역시 매력적인 힘에 이끌려 선계를 경험했고 신선이 되었다. 신이한 세계에서 오히려 유가의 이상 세계를 확인하게 된다. 이에 비해 「가평유생」에서는 선계에서 남성으로서의 꿈을 이룬다. 그가 들어간 선계는 선옹이 지배하고 조종하는 곳이었다. 선계는 유생을 보호해주며 남성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선계가 남성의 꿈을 실현하는 공간이 된 것은 이야기 밖에 있는 현실, 즉 전쟁과 연관이 있다. 전쟁과 공포, 죽음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에서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환상 공간으로 들어가 선옹같은 절대자의 비호 아래 은신하는 것이다. 이들은 신이한 공간으로 나아가 새로운 힘을 체현하려고 했지만 결국 새로운 힘이란 선옹과 같은 절대자의 비호 아래에서 나온다.

유생이 신선의 세계에 흘러 이 세계를 떠나는 신선담은 탈유가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 「취유부벽정기」에서는 신선담이 지니고 있는 전복적인 지점이 드러나 있다. 주인공 홍생은 천녀에 의해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지만, 이로 인해 유가적 주체에서 이탈해버렸다. 그러나 「최생우진기」와 「가평유생」 역시 신선담이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사라지고 있다. 이 이야기들은 모두 신선담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유가적 질서를 반복하고 재생산한다. 즉, 형식과 내용이 부조화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과정은 16세기 이후 유가의 질서가 더욱 공고히 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취유부벽정기」에서 홍생은 신이한 세계로 나아갈 수 있었다. 유가적 합리주의에 의해 신이한 세계는 조선 초기부터 배척되었지만, 『금오신화』가 나왔던 15세기 말에는 유가의 선비들의 의식 속에는 합리-신이의 세계가 위계화적으로 구조화되지 않았고, 이 세계를 적극적으로 배척하지도 않았다. 이들은 여전히 신이의 세계 속에서 거주하고 있던 것이었다. 16세기 이후에는 신이의 세계로의 이탈은 지속되었지만 이 세계는 유가적인 방식으로 조직되었고, 이후 이 유가의 질서는 남성적 가족질서로 이어지게 되었다. 즉, 남성적 가족질서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하게 되었다.³²⁾ 조선 시대 유자들은 신이한 세계가 지니는 위험성과

전복성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감지하고 있었기에 신이한 세계는 유가적인 방식으로 구조화되면서 신선담 속에서 유전되었다.

32) 신선담에 남성적 가족질서가 나타나는 것은 17세기 이후 성리학 지배이념이 확고히 성립되면서 남성적 중심의 가부장적 질서가 공고히 된 것과 관계있다. 신선담은 자연의 힘을 체현해 영원한 삶을 사는 존재인 신선이 되는 이야기인데 「가평유생」에서 표면적으로는 신이한 세계의 힘을 체현한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원한 삶이란 가족과 가문이 영속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BSTRACT]

The Stories of Immortals and the Directions of the Mythical Epics

Kim, Su Yeon
Central China Normal University

Among the immortal stories that came out in early Joseon Dynasty, we can say the stories of Confucian scholars captivated by the immortal world, turning their back on the world and becoming immortals are very problematic. They entered into the mythical world, which they denied and became Immortals, which they considered as false beings and therefore we can say they are deviating from Confucianism. Most of them enter the immortal world, attracted by unknown forces. They came across a problem in the real world, so they headed to the immortal world to solve it, either consciously or unconsciously and met the immortals. In 「chwiububyeokjeonggi」, Hongsang, the protagonist, came to live an immortal life by the celestial nymph, but he eventually got out of his Confucian self. 「Choisaengujingi」 and 「gapengyusheng」, which were written in 16th and 17th century, takes the format of a story of immortals but in reality, it solidifies the Confucian order. In other words, they entered unworldly spaces and repeatedly generated Confucian orders. Although stories of immortals have elements deviating from Confucianism, these elements were gone by the middle Joseon Dynasty and became stories of repeating Confucian orders.

Key Words: chwiububyeokjeonggi(취유부벽정기), Choisaengujingi(최생우진기) gapengyusheng(가평유생), the Mythical Epics, Confucian order, immortal stories, Confucian self

참고문헌

- 임방 저, 정환국 역, 『천예록』, 성균관대학출판부, 2005, 1-328면
- 주희, 여조겸 편저, 엽채 집해, 이광호 역주, 『근사록집해』, 아카넷, 2004, 1-566면
- 안대회 지음, 『선비답게 산다는 것은』, 푸른역사, 2007, 1-299면
- 신광한 지음, 박헌순 옮김, 『기재기이』, 범우사, 2002, 1-195면
- 김시습 지음, 심경호 옮김, 『금오신화』, 홍신문화사, 2002, 1-382면
- 신이와 이단의 문화사 팀 저, 『귀신 요괴 이물의 비교문화론』, 소명출판, 2014, 1-466면
- 김상순, 「조선시대 필기·야담류에 나타난 귀신의 세 유형과 그 역사적 변모」, 『귀신 요괴 이물의 비교문화론』, 소명출판, 2014, 118-150면.
- 김수연, 「〈취유부벽정기〉의 ‘경계성’에 대하여」, 『한국고전연구』19권, 한국고전연구학회, 2009, 217-250면.
- 김정숙, 「17, 18세기 한중(韓中) 귀신·요괴담의 일탈과 욕망」, 『귀신 요괴 이물의 비교문화론』, 소명출판, 2014, 296-327면.
- 김효민, 「생명의 심상공간—무릉도원과 그 변주」, 『중국어문학논집』제34집, 중국어문학회, 2005, 329-345면.
- 박기용, 「한국도교설화의 현세성과 초월성」, 『국제언어문학』 29호, 국제언어문학회, 2014, 51-80면
- 박일용, 「취유부벽정기의 형상화 방식과 그 의미—등목취유취경원기, 감호야범기와의 대비를 중심으로」, 『고소설연구』14, 2002, 5-30면.
- 박희병, 「이인설화와 신선전」, 『한국고전인물전연구』, 한길사, 1992, 187-275면.
- 윤주필, 「귀신론과 귀신이야기의 관계 고찰을 위한 시론」, 『귀신 요괴 이물의 비교문화론』, 소명출판, 2014, 153-200면.
- 전성운, 「〈최생우진기(崔生遇眞記)〉의 서사 기법과 의미」, 『어문논집』71, 민족어문학회, 2014, 125-151면.
- 정민, 「유선시의 서사틀과 낭만적 상상력」, 『초월의 상상』, 휴머니스트, 2002, 202-208면
- 정선경, 「중한 신선고사의 시간성 비교고찰—『태평광기』와 『해동이적』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제23호, 중국어문학연구회, 2003, 363-388면
- 정선경, 「韓國神仙說話의 기원 및 전개—於于野譚을 기점으로」, 『중국어문학논집』제32집, 중국어문학회, 2005, 221-242면.

정환국, 「『금오신화』와 『전등신화』의 지향과 구현화 원리」, 『고전문학연구』 22권, 한국고전연구학회, 2002. 307-334면.

조현설, 「조선 전기 귀신이야기에서 나타난 신이 인식의 의미」, 『고전문학연구』 23권, 한국고전문학회, 2003. 147-178면.

이 논문은 2016년 11월 4일 접수되어 11월 25일까지 심사받아 12월 19일 게재 확정됨.